

#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60만 역대 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적별로는 일본인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절반 이상은 피부과·성형외과 진료를 받았다.



▲ 인천의 한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관광공사

지난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모두 60만5768명(복수진료 제외)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남아있던 2022년보다 2.4배(144.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환자는 2019년 49만7464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11만7069명(2020년)까지 급감했다.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환자를 말한다. 단순 코로나 검진, 상담, 비대면, 대리처방 환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98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았고, 이 가운데 일본인(비중 31.0%)이 가장 많았다. 일본이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 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다음은 중국(18.5%), 미국(12.7%), 태국(5.1%), 몽골(3.6%) 차례였다. 대만(2.1%)은 집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방문해 전체 국가 가운데 2022년 대비 방문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진료과별로 보면 전체 진료과의 절반 이상이 피부과(35.2%)와 성형외과(16.8%)였다. 피부과, 한방통합, 검진센터 등은 외국인 환자가 2022년보다 2.6~6.6배 늘었다.

# 'N잡러' 55만 명 넘었다

2개 이상 일자리를 가진 이른바 'N잡러'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1년 새 30%가량 늘어났다.



▲ 배송업체 배달의 민족의 신입 라이더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우아한창년들

지난 2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55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만 1000명)보다 22.4%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9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1만 8000명), 40대(11만 5000명) 순이었다. 30대(7만 1000명)와 청년층(15~29세·5만 3000명)이 뒤를 이었다.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가 두드러졌다. 청년층은 전

년보다 30.9%(1만 2400명) 늘었고 40대는 같은 기간 27.7%(2만 5000명)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25.1%·3만 9000명), 30대(14.9%·9300명), 50대(14.7%·1만 5000명) 순이었다.

부업자 증가로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그에 못 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29만 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많았을 뿐이다. 시간당 소득은 1만 3000원꼴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1만 6000원)보다 3000원 적었다. 주업과 부업을 합친 근로시간은 14.4시간 길었고, 주 최대 근로시간(52시간)을 초과했다.

# 한국 국민 약 63%, 출생아 1명당 지원금 1억원 '찬성'



▲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는 게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참여 인원은 1만3640명이었다.

'정부가 사기업처럼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자녀당 1억원씩 파격적 현금을 지원할 경우,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6%는 '약 23조원(2023년 출생아 기준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응답자 중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다.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 별로는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출산·양육과 관련해 역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황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락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자, 자녀를 갖는 부모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 테메쿨라 한인 치과 오픈!

## TOWN CENTER DENTAL

·타운 센터 덴탈· 무료상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 T.951.693.9595

29700 Rancho California Rd. STE G5, Temecula, CA 92591  
Mon - Wed, Fri. 9:00AM - 6:00PM

GRAND OPENING

임플란트 \$1,200 부터